

여름휴가, 간편하게 차 준비하세요

올해 초부터 차를 즐겨 마시게 된 직장인 송현호씨(35). 여름휴가 기간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인 송씨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다. 여행지에서 차를 마시고 싶은데, 다구를 모두 챙겨가자니 번거롭고 시중에 파는 녹차 음료로는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송씨의 걱정을 해결해 준 것은 바로 휴대용 다기(茶器). 최근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휴대용 다기의 종류와 휴대용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자연에서 차한잔의 여유 '좋~다'



자연을 벗삼아 마시는 차 한잔은 일상의 시름과 번잡함을 잊게 해준다. 휴대용 다기를 이용해 휴가지에서도 간단한 차차리를 마련해보자.

들이미 적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다구 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5천원~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유리제품으로는 최근 차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용 유리 다관이 인기다. 유리는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지만 값이 저렴하고 다관에 차향이 배지 않아 다양한 차를 즐길 수 있다. 거름망에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차가 우려지면 찻물을 빼내면 된다. 500ml와 1000ml 두 종류가 있으며 값은 1만5천원~3만원 선. 도자기와 유리 다관은 야외에 가지고 갈 때 찻주머니에 넣거나 공기가 주입된 비닐에 싸야 파손을 막을 수 있다.

오랫동안 따뜻한 차를 마시길 원한다면 스테인리스 제품을 추천한다. 스테인리스

가 접이식으로 만들어져 보관이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도 꼭!

휴가지에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습기와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시고 싶은 차를 한 번 우려마실 만큼 덜어 중



휴대용 말차도구 세트.

휴대용 다기,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 재료 다양 유리 다관 야외 이용시 천으로 감싸 파손 막아야 습기·냄새 배지 않도록 밀폐용기 비닐팩에 보관

다구 준비하기



잔과 다관으로 이뤄진 1인용 다기.

최근 차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다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재료도 도자기에서부터 유리,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휴대용 다기들은 가지고 다니기도 편할 뿐 아니라 사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휴대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1인용 다기다. 흔히 1인용 다기라고 하면 거름망이 들어 있는 잔 형태의 다기를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뚜껑이 있는 1인용 다관과 찻잔으로 이뤄진 휴대용 다기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일반 다관에 차를 우려낼 때와 맛이 거의 비슷하며, 잘 깨지지 않아 보관이 간편하다. 다관에 찻잎과 뜨거운 물을 넣고 우린 후 찻잔에 부어 마시면 된다. 찻잔을 다관에 얹었을 때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흔



거름망이 있는 유리다관.

제품도 차를 우려는 다관(문체)과 거름망,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손 위험이 적다. 자동차 컵 홀더 등에도 꽂아 쓸 수 있어 실용적이며, 보관 케이스에 넣으면 보온성이 지속된다. 찻잎이나 티백을 다관에 넣고 거름망을 장착한 후 물을 부어 우려면 된다. 용량과 재질에 따라 2만원~4만원 선.

플라스틱 제품은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플라스틱 특유의 냄새가 배어 차 맛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다. 말차의 경우에는 바구니에 다관과 차선, 차선통, 차시가 담겨 있는 휴대용 세트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쉽게 부러지지 쉬운 차시

별종 포장해야 차의 향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3~10g씩 소량 포장된 차도 판매하고 있다. 차는 주석이나 사기로 된 차호에 넣어 습기로부터 안전하지만, 무겁고 번거로운 때는 밀폐 용기나 냄새가 나지 않는 비닐 팩 등에 넣어도 상관없다.

휴가지나 야외에서의 차차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다포와 다간이다. 유리나 도자기로 된 다구가 깨지기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찻상을 따로 준비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다포를 깔아 찻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용 퇴수기를 준비한다면 일일이 찻물을 버리러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㉔



유진강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37)

고려시대부터 중국과의 사행(使行) 때 공물이나 회사품에 거의 빠짐없이 차가 들어있었고, 그 양도 적지 않았다. <통문관지(通文館誌)>에 의하면 사신들의 왕래에 상당량의 차가 공식적으로 오갔다.

또 중국에 들어간 우리 사행에 일정량의 차를 조참이나 하정 때 내렸는데, 이 시기에 오면 중국의 차인심도 각박해져 그 양이 줄었다. 임란 후 일본과 국교가 회복되면서 사신들이 오면 동래부에서 차례를 행했다. 왕실이나 공식적 의례에서는 차의 수요가 줄지 않았지만 전란 전에 비해 민간의 차 생활은 위축되었다. 명나라는 산차에 대한 다사들이 계속 쓰여졌다. 허차서의 <다소>를

정(正)이라 이름붙이고 후에 거거사송사(送使)했다.

④ 중국 사신이 오면 상사(上使)와 부사(副使)의 방에 대기하던 인원 중 찻일을 맡아 통역하던 다방소통사(茶房小通詞)를 두었다.

⑤ 20여개 항목에 걸쳐 산차에 관한 기록한 명대의 대표적 다사다.

⑥ 정용빈: 명대 차학자로 <다록> 4권을 찬술했다.

⑦ <삼재회도>: 오기(五珩)가 쓴 책으로 내용 중 차에 관한 기록이 있다.

⑧ 작자 미상으로 왕경미(王敬美)의 찻일에 관한 것이 실려있다.

⑨ 허수방(夏樹芳)이 쓴 것으로 96칙(冊)의 목록에 따라 선인들의 다사(茶事)를 기록했다.

고려-중국과 사행때 공물·회사품으로 사용 명나라-허차서의 <다소>등 많은 다서 저술

비슷해 <다록> <죽장잡록> 등 수많은 다서가 나왔다. 국가에서 차의 정책을 관장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고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를 두었다.

일본은 막부시대를 지나오며 선적(禪敎)으로 순수한 다종이 대명이나 막부에 의해 정치권력과 결부되어 우치다(宇治茶)가 크게 번창하고 서민들에게도 차가 널리 자리 잡았다.

① 유성룡(1542~1607):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오고 영의정에 올라 임란을 치른 명상(名相)이다. 차인으로 다사도 몇 편 전한다.

② 동래부에 부사를 두고 왜사(倭使)들을 접하게 하고, 그들을 맞아 차례를 행했다.

③ 현소(玄蘇)가 여신의 암자에

⑩ 유정(楡政)이 찬집한 책으로 1권에 문류(文類), 2권에 시류(詩類)로 엮은 것이다.

⑪ <만보전서>는 명나라 장원이 <다록>을 실은 책으로 초의선사가 쓴 <다신전>은 이것을 옮긴 것이다.

⑫ 도정조실: 중근세 일본을 대표하는 호상(豪商)으로 대마도를 거점으로 외국과의 교역을 위한 차인임. 직전선장과 가까웠고 좋은 중국과 조선의 선제품에 다도구를 많이 취급하고 다회도 열었다.

신옥종담: 종실보다 조금 늦은 대마도 선두일족(船頭一族)으로, 상기(箱崎)의 다회에서 수길을 도와 구주(九州)를 평안케 했으며 <종담일기>를 남겼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표는 약(about)

| 한국 | 중국 | 일본 |
|--|---|---|
| ◎ <삼재초요(叢載抄要)>에 정다(點茶)가 나온다 1605 사헌부의 다시(茶時) 1607 유성룡의 죽음 ① ◎ <죽장잡록(竹窓雜錄)> ② 1609 <다록(多錄)>(홍사기) | 1602 <다소(茶錄)>(허차서) ⑤ 1604 <다록(茶錄)>(정용빈) ⑥ 1607 <삼재회도(三才繪圖)> ⑦ ◎ <죽장잡록(竹窓雜錄)> ⑧ 1609 <다록(多錄)>(홍사기) | 1603 강호막부(江戶幕府) ◎ 도정조실(嶋井宗室)과 신옥종담(神屋宗湛)의 활동 ⑫ 1613 우치체다사(宇治探茶使) 보냄 1614 우치에서 산차를 올림 |
| 1610 <동의보감> 동래부(東萊府)에 외사 맞이 ② 1611 이정암(以町庵) 송사 ③ 1613 다시(茶時) ④ 1618 중국 가는 사신들의 사행위 금지 ◎ 다방소통사 ④ | 명대 1610 허란인(荷蘭人)이 마모이에서 차를 팔다 ◎ <다동(茶童)> ⑨ 1613 <다집(茶集)> ⑩ 1615 <만보전서> ⑪ 1518 홀차대신 러시아와 직접 판매 약정 | 남북조 |

FDA “녹차 항암효과 없는 듯”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녹차에 항암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FDA는 최근 홈페이지(www.fda.gov)를 통해 ‘녹차의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녹차가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극히 ‘미약하고 제한적인(weak and limited)’ 보고서에서만 항암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FDA는 “현재의 근거로는 녹차를 검증된 건강식품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다른 유형의 암 예방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FDA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이뤄진 녹차의 항암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일본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